



즉시 배포용: 10/7/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제3차 포도주, 맥주, 증류주, 사과주 서밋 개최

주지사, 뉴욕주의 수제 음료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1600여만 달러 투자 및 지원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Albany에서 제3차 뉴욕주 포도주, 맥주, 증류주, 사과주 서밋을 개최하였습니다. 서밋에서는 농장 기반 음료 제조업자, 업계 리더 및 농업 생산자들이 교육자 및 주정부 관리들과 만나 새로운 산업 기회를 모색하고 뉴욕주의 번영하는 음료 산업을 성장시킬 방안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결과로 주지사는 다수의 주정부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는 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총 1600여만 달러의 투자 및 사업이 포함됩니다.

“농장 기반 음료 산업에 대한 우리의 투자는 포도주, 사과주, 맥주 및 증류주 양조장을 위한 경제적 모멘텀의 시너지를 창조하였습니다. 그 모멘텀은 주 전역의 소기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미래에도 계속되게 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번잡한 행정 절차를 생략하고 창의적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우리는 수제 음료 산업의 리더로서의 뉴욕주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서밋은 우리가 이룩한 진보의 증거이며 본인은 우리 주의 음료 생산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두각을 나타내기를 기대합니다.”

주지사의 개막 연설 **비디오**를 [여기의](#) 유튜브에서 볼 수 있고 [여기에서는](#) TV급(h264, mp4)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주지사의 **Flickr** 페이지 [여기에](#)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취임한 이래 수 많은 포도주, 맥주 및 사과주 양조장을 방문한 본인은 그들이 뉴욕주의 경제 회복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농장 음료 산업 종사자들은 이 신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흥분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들은 이 산업을 지원하는 기업가와 농민들을 위한 사업 환경 개선에 대한 주지사의 집념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Cuomo 지사는 주정부 관리, 연구 및 농업의 전문가들, 음료 산업 리더로부터 뉴욕주가 어떻게 하면 수제 음료 산업을 계속 확대하고 다양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음으로써 오늘의 서밋을 시작하였습니다. **2015** 포도주, 맥주, 증류주, 사과주 서밋에

대한 추가 정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John Flanagan 상원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3차 뉴욕주 포도주, 맥주, 증류주, 사과주 서밋은 성공이었으며, 본인은 수제 음료 산업의 미래를 토의하기 위한 포럼을 다시 소집하신 Cuomo 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주는 지난 몇 년에 걸쳐 이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였는데 이러한 지원은 소기업이 번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새로운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뉴욕주에 관광객을 몰아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Carl Heastie 하원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뉴욕주의 번영하는 음료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서 본인은 기쁩니다. 최근 업스테이트를 시찰하는 동안에 본인은 수제 음료 생산에 기여하는 농업 현장 몇 군데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농장들은 우리 주의 경제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절실히 필요한 지원과 관심은 당연하며, 본인은 이 팽창하는 산업에 계속 초점을 맞추는 Cuomo 지사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에 Cuomo 지사가 취임한 이래 제조자 및 생산자를 지원하는 주정부 조치는 포도주 양조장 면허 수의 67% 증가; 새 포도주 양조장 수의 436% 증가; 영세 디스틸러, 영세 렉티파이어 및 과일 브랜디 면허 수의 200% 증가; 사과주 양조장 면허 수의 600%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Cuomo 지사는 2012년에 최초의 포도주, 맥주, 증류주, 사과주 서밋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주지사는 수제 음료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지시와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 내용이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시장과 홍보에 투자

2014년에 처음 출범한 마케팅 및 홍보 노력을 갱신하기 위해 5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관광 진흥을 위한 100만 달러와 광고 캠페인을 위한 100만 달러를 통해 이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접 지출에 2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Empire State Development는 뉴욕주에서 생산되는 포도주, 맥주, 증류주, 사과주의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한 업계 부담금의 20%에 해당되는 300만 달러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출범시킬 것입니다. 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주체에는 금년에 새로이 비영리 단체와 제휴한 보조금 수령자로 봉사하는 주체 또는 일차적 목적과 사명이 뉴욕주에서 생산되는 포도주, 맥주, 증류주, 사과주의 홍보 및 마케팅인 비영리 단체가 포함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 총액 중 \$400,000는 Long Island 지역의 성장하는 포도주 관련 관광을 뒷받침하기 위해 Long Island 포도주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이니셔티브와 셔틀 서비스 확대에 투입될 것입니다.

산업 성장 및 고용 지원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주류청 Vincent Bradley 청장이 이끄는 업계 리더 실무 그룹의 창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실무 그룹은 현재 뉴욕주의 알코올 음료 통제 법률들의 개정을 검토할 것입니다. 주 주류청 Bradley 청장과 업계 리더들은 현재의 알코올 음료 통제 법률의 가능한 재조직 또는 대체를 다음과 같이 모색할 것입니다:

- 면허 조항 개선
- 가능한 면허의 타입 규명
- 필수 서류의 축소
-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제약의 제거

또한 주지사의 글로벌 NY 개발 기금은 포도주 및 맥주 업계가 수출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기 위해 최대 \$50,000의 무이자 융자를 위한 500만 달러를 비축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출 마케팅 계획 수립, 웹사이트 번역, 제품 적응 및 시장 인증이 포함됩니다. 이 기금은 뉴욕주에 기반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여 수출을 늘리고 뉴욕주에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기 위해 주지사가 금년 초에 창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주는 맥주 생산 크레딧을 확대하여 2016년 1월 1일에 시작되는 세년부터 시작하여 기타 타입의 알코올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는 기존 크레딧 혜택액인 첫 500,000 갤런에 대한 갤런당 14센트 및 그 이후의 갤런당 4.5센트를 이용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크레딧 적격 제품의 양에 대한 한도는 포도주와 사과주의 경우 2000만 갤런(납세자당 최대 \$745,000의 크레딧) 및 증류주의 경우 800,000 갤런(납세자당 최대 \$83,500의 크레딧)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한도는 맥주 생산 크레딧에 채용된 것과 유사하며 중소기업과 최근 설립된 회사들이 혜택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번잡한 행정 절차 단축

오늘의 서밋에서 수제 음료 제조업체들이 당면한 난제들을 듣고 주 주류청은 이전에 음료 산업 내에 혼란을 야기한 법규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 10가지 조치를 발표하여 추가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 판매인이 복수의 수제 음료 제조업체를 위해 일하는 것을 허용. 그러면 수제 음료 생산자들을 위한 더 많은 유통 수단이 생기고 취업 기회를 찾고 있는 판매인들은 이 성장하는 음료 산업에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점 법률의 해석을 변경하여 복수의 수제 음료 제조업체들이 동일 장소에 지점들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 그러면 제조업체들이 같이 일할 수 있고 및/또는 운영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대형 양조업체가 소형 양조업체를 위해 생산하는 청부 양조 관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크고 작은 수제 음료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고, 소형 양조업체가 재정적으로 더 많은 생산 능력에 투자할 타당성이 있을 때까지 소규모 현장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점포의 맥주를 그라울러에 담아 파는 행위 허용. 그러면 대규모 가정 배달 사업을 하는 창고 및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가정 배달을 하는 맥주 면허권자들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
- 양조업체가 소매업자로부터 시음에 사용되는 맥주를 사는 것을 허용하도록 마케팅 허가를 업데이트. 양조업체가 직접 맥주를 가져올 필요 없이 더 많은 시음 행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석자들이 유료 입장인지의 여부에 대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수제 음료 시음 행사를 개최하는 주체에게 허가 발급을 허용.
- 비영리 단체가 실시할 때 해당 장소에 허용되는 제비뽑기 및 게임을 유면허 소매업자에게 규명. 그러면 모금 활동으로 비영리 단체를 돕기 원하는 소매업자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ID 개선을 위한 주지사 발표를 옹호함으로써 소매업자 및 법집행을 지지. 주 주류청은 어느 ID가 인정되고 어느 ID가 인정되지 않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 보조 클럽 면허자(회원만 섬기는 비영리 단체), ABC 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운영 요건을 한 장소에 제공함.
- 고객들이 가서 업소의 장비와 조언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포도주나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장소인 홈 와인 메이킹 또는 홈 비어 메이킹 센터로 운영되는 업소를 위한 허가 발급.

기관장과 당국이 자신들의 포도주, 맥주, 증류주, 사과주의 구입을 검토하고 주 조달법에 맞는 뉴욕주 수제 음료 제품의 침투를 증대할 것입니다. 농업시장부가 Taste NY 브랜드에서 기관 및 청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Taste NY 및 관광업 기회 확대

Taste NY에 의한 \$25,000 투자로 전세계의 가장 혁신적인 셰프, 페이스트리 셰프, 바텐더, 소믈리에 100여명을 모아 최신 기법과 요리 개념을 선보이게 하는 연례 요리 심포지움인 Star Chefs International Chefs' Congress에 증류업자들이 참석할 기회를 후원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의 서밋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광 진흥 기회가 공개되었습니다:

- 뉴욕주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밝히기 위해 브랜드 라벨에 I LOVE NY 및 Pride of NY 로고를 사용할 수 있어서 수제 음료 제조업체들이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마케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Brooklyn의 Barclay's Center에 Taste NY 프로그램을 확립하고 Times Union Center 및 Tri-City Valley Cats와의 파트너십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원스톱 솥을 통한 지원 강화

2013년에 Cuomo 지사는 법규, 인허가, 주 인센티브 그리고 이 산업이 직면한 기타 문제와 관련해 지원할 목적으로 뉴욕의 포도주, 맥주 및 주정 생산업체에게 정부의 단일 연락처를 제공하기 위한 원스톱 솥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원스톱 솥은 600여

업주 및 기업가들로부터 직접 요청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서밋의 결과로 주 주류청 내에 수제 음료 제조업체의 모든 질의에 대응하기 위한 과가 창설될 것입니다. 이 과는 업주 또는 기업가들의 경험을 개선하고, 허가 부여 과정을 촉진하며, 수제 음료 제조업체에 면허, 준수, 브랜드 라벨 및 기타 규제 니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 주류청은 관심사를 논의하고 입법 및 규제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수제 음료 제조업체와의 반기 원탁 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원탁 회의는 업계 구성원들이 난제와 관심사를 토로하는 음향관 역할을 할 것이며, 주 주류청은 모든 업계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업계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연구 개선

주 주류청은 와인 스쿨이 과정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시음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는 와인 교육자들에게 시음 허용 결과를 덜어주고 뉴욕주 교육 기관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연구의 성장에 불을 당길 것입니다.

주정부는 또한 Geneva의 NYS Food Venture Center를 개조할 것입니다. 이 센터는 Winery and Enology Lab과 NYS Brewery & Analytics Lab을 갖고 농장 기반 음료 산업을 위한 광범위한 컨설팅, 기술 서비스 및 샘플링을 수행합니다. Food Venture Center 재활성화는 이러한 농장 기반 음료 실험실이 성장하는 농장 기반 음료 부문 및 부가가치 식품 생산 부문의 끊임 없이 확대되는 업계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공간과 능력을 가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센터는 매년 3000여건의 테스트 및 식품 상업화 용역 요청을 접수합니다. 북동 지역 유일의 FDA 인증 식품 당국으로서 이 센터는 식품 혁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식품 안전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주는 이전 예산에 투입된 340만 달러에 350만 달러를 추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효 사과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는 \$200,000를 투입해 Geneva의 농업실험소에 연구 터를 마련하여 크기, 질병 및 바이러스 감수성과 원하는 소비자 특성에 대해 다양한 사과술 사과를 재배하고 필드 테스트할 것입니다.

주 농업부 장관 **Richard A. Bal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수제 음료 산업은 우리 주 농사업에 대한 전례 없는 지원과 진흥을 제공한 Cuomo 지사의 이니셔티브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튼튼합니다. 업계의 우리 파트너들과 협력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확대하여 우리 수제 음료 생산자들이 혁신적 제품을 만들어 마케팅하고 일자리와 뉴욕주 농경제를 성장시키도록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총재, CEO & 커미셔너 Howard Zemsk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하에서 주 기관들의 협업을 통해 우리는 뉴욕주의 수제 음료 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서밋은 계속 크게

효과를 내는 투자를 강조함으로써 수제 음료 생산 리더로서의 뉴욕주 지위를 재강화하였습니다. 800여 맥주, 포도주, 증류주, 사과주 업소들과, 성장하는 인력 및 27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로 우리는 뉴욕주의 급성장하는 수제 음료 산업의 영향력을 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주 주류청 **Vincent Bradley** 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Cuomo 지사는 뉴욕주 음료 제조업체들의 성장 잠재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난 5년에 걸쳐 입법 및 규제 정책 개혁과 주 사업 환경의 실질적 개선이 어우러져 수제 음료 생산업체의 기록적 성장을 자극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형 제조업체들이 뉴욕주에 개업하고 확장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업계 리더들로부터 직접 관심사와 아이디어를 들었으므로 내일 우리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작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뉴욕주의 성장하는 맥주, 와인, 증류주 및 사과주 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taste.ny.gov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